

이랜드몰, 내달 2일까지 '2022 반값특가' 이벤트

이랜드몰이 1월 2일까지 연말과 새해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2022 반값특가'를 진행한다. 이랜드몰의 여성복 미쓰의 겨울 코트, 블라우스, 신발 및 잡화,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애니바디와 신디의 레깅스 및 피트니스웨어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또 홈파티를 계획 중인 고객을 겨냥해 CJ제일제당의 가정간편식 상품인 고메 피자, 치킨, 햄박스테이크 등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다.



세대교체 속도내는 식품업계

MZ세대 오너 3,4세 경영 일선 전진배치

식품업계가 2030 MZ세대인 오너 3·4세들을 경영 일선에 배치하며, 세대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게 임원 승진과 외부에서 경영 수업을 받다가 본가로 복귀한 경우로 나뉜다. 향후 안정적인 승계 작업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맡은 직책에서 리더십과 성과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CJ 이선호 경영리더, 신사업 주도 농심 신상열 부장도 구매담당 상무로 매일업업 장남, 신세계 근무하다 복귀 "능력 입증되면 승계 작업 속도 ↑"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왼쪽 세 번째)와 팀 해리스 LA레이커스 CEO(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CJB비고XLA레이커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비고 로고가 적용된 새로운 저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CJ제일제당

이번 인사는 CJ그룹의 승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장녀 이경후 CJENM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정기 임원인사에서 승진한 데다, 이번에 이 경영리더까지 임원에 오르며 승계 작업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CJ그룹은 내년 CJ올리브영의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이 경영리더는 자신이 보유한 CJ올리브영 지분 11.09%를 현금화해 핵심 지주사 CJ 지분을 매수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심도 1일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신상열(28) 부장을 구매담당 상무로 승진시키며 3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1993년생인 신 상무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2019년 농심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그간 경영기획팀 및 기획과

예산 관련 업무를 맡다가, 이번에 구매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식품기업에서 구매 담당은 산업 구조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 업무로 꼽힌다.

마침 신동원 농심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그룹회장직만 맡으면서, 신 상무의 경영권 승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업업·오리온, 외부에서 본가로 복귀
외부에서 경영 수업을 받다가 본가로 복귀한 케이스도 있다. 김정완 매일업업 회장의 장남 김오연(34)씨는 10월 매일업업에 입사해 생산물류 혁신 담당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신세계그룹에

입사해 7년간 재무 담당으로 근무하며 유통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아들 담서원(32)씨는 7월 오리온에 입사해 경영지원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989년생인 담 부장은 미국 뉴욕대를 졸업하고 중국 유학 경험을 살려 회사 전체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법인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카카오펀터프라이즈에 일반 평직원으로서 입사해 경력을 쌓기도 했다.

이밖에도 함영준 오투기그룹 회장의 장남 함윤식(30)씨는 오투기 경영지원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함씨의 오투기 지분율은 2.17%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삼양식품의 경우,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아들인 전병우(27) 이사를 중심으로 3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94년생인 전 이사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2019년 해외사업본부 소속 부장으로 입사했다.

지난해 임원으로 승진하며 삼양식품 전략기획부장을 맡아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3·4세대들이 중책을 맡아 경영 일선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앞장서는 만큼, 향후 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며 "오너 3·4세들의 경영능력이 입증된 기업일수록 경영 승계 작업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동행복권, 연말 이웃과 온정 나눈다

사회복지단체에 기금 전달...취약계층 위한 봉사도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이사 조형섭, 김세중)이 연말을 맞아 이웃들과의 동행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행복권 사회공헌활동 '동행X(곱하기)'를 통해 모아진 기금을 푸르메재단,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적십자사, 제주올레 등 4개 단체에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행X(곱하기)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1일 1회 접속 시 100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각 단체가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인 발달장애 청년 자립 지원, 가정폭력 가정지원, 입양대기 아동 지원, 제주 올레길 생태 복원사업 등에 쓰인다.

동행복권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국전자금융, 케이씨티, 에스넷시스템, 케이뱅크 등 주주사 임직원 30여 명 및 (사)따뜻한 하루가 함께 구로구민체육센터에 모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방한용품 키트를 제작하고, 140여 가구에 전달했다(사진). 키트는 발열내외, 기모양말, 극세사 무릎담요, 핫팩, 장갑 등으로 구성했다.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이사는 "동행복권은 컨소시엄 구성사와 함께 소외계층 지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복권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과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애경산업 '사랑과 존경의 연탄 나눔' 전달식

애경산업이 28일 '사랑과 존경의 연탄 나눔' 전달식(사진)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8890장을 지원했다. 기부 연탄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등 4개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11월 애경산업의 온라인 서포터즈인 AK LOVER가 진행한 '사랑의 연탄 나눔 맛글 이벤트'의 참여 기부 수량인 연탄 3890장에 애경산업이 연탄 5000장을 더해 나눔 활동에 의미를 더했다. 회사 측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부터 14년째 연말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탄 나눔이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NHN벅스, 제이플라 소속사에 전략 투자

NHN벅스는 콘텐터테인먼트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콘텐터테인먼트는 유튜브 뮤직 크리에이터이자 싱어송라이터 제이플라(J.Fla)가 소속된 기획사다. 제이플라는 유명 가수 음악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튜브 채널(JFlaMusic)은 2018년 국내 개인 유튜버 최초로 1000만 구독자를 달성했으며, 현재 1740만 명 이상이 구독 중이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콘텐트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글로벌 팬에게 인지도가 높은 제이플라와 시너지를 창출하며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트를 선보이고, 국내 외 콘텐트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발매 음원을 통한 유통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코오롱LSI, 나눔캠페인 결산 내년에도 ESG경영 역량 강화



래저 및 부동산 산업 종합서비스 기업 코오롱LSI가 올해 ESG경영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을 위한 관련 역량 강화에 나선다.

코오롱LSI는 올해 기업의 윤리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ESG 핵심 요소인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연탄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고, 지역 농가 및 신진 아티스트 홍보와 판로 지원에도 나섰다. 코오롱호텔,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 호텔 포코 성수 등은 1년간 50여 만 개의 객실 일회용アメニ티 사용을 줄였다. 환경기업과 협업한 '세이프 어스 노(NO) 플라스틱' 패키지도 운영했다.

코오롱LSI는 2022년에도 ESG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월 코오롱 그룹의 '드림팩 기부천사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 협업 확대, 친환경 경영 강화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펼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황중현 SPC삼립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네 번째) 등이 ESG행복상생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가상생 브랜드 '함께 웃어요 빵' (오른쪽 사진). 사진제공 | SPC삼립

"친환경·미래먹거리 발굴" ...SPC삼립, ESG상생경영 박차

친환경 브랜드와 협업·포장지 사용 식물성 대체 식품·푸드테크 위해 협약 지역 농산물 사용한 상생브랜드 론칭

SPC삼립이 지속가능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펼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Good For All(모두를 위한 약속)'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활동과 지역 상생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브랜드와의 협업(초바니), 친환경 포장재 적용(삼립호빵), 동물복지 제품 출시(그릭슈바인 동물복지 캔햄)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 농산

물 '팽창 감자'와 '해남 고구마'를 사용한 농가 상생 브랜드 '함께 웃어요 빵'을 론칭하는 등 지역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11월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SPC삼립-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ESG행복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삼립호빵(야채호빵)에 친환경 양파 사용을 시작으로 향후 친환경 농산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미래 식품 사업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미국 푸드테크기업 '잇 저스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식물성 대체 계란 '저

스트 에그'를 파리바게뜨와 피그인터가든 등에 독점 유통하고 있다.

10월에는 SK와 함께 식물성 대체식품, 발효식품, 푸드테크 등 지속가능 식품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발효 단백질 선도 기업인 '퍼펙트데이', 영국 대체육 시장을 주도하는 '미트리스팜' 등 푸드테크 기업과의 사업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2022년 새해에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활동은 물론, 지구 환경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종합식품 전문 기업으로서 업의 특성을 살린 ESG 활동으로 건강한 식문화 조성 및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